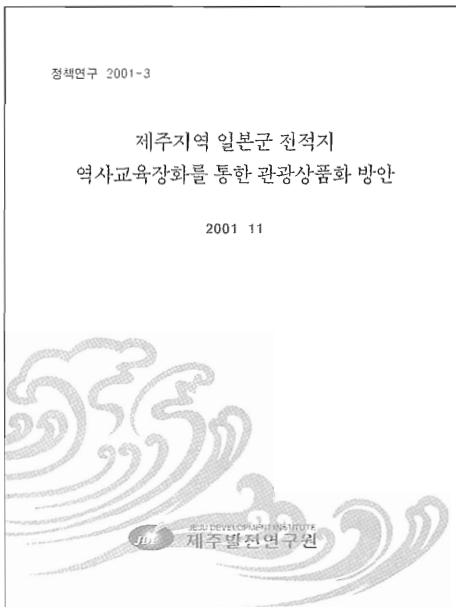


제주지역 일본군 전적지의 역사교육장화를 통한 관광상품화 방안

신 동 일 /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원
문 성 종 / 제주한라대학 관광경영과 교수
정 승 훈 /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원



□ 연구배경 및 목적

○ 제주도 전역에는 태평양전쟁과 관련하여 구축된 진지동굴, 참호, 비행장 등의 일본군 전적지가 산재해 있어 이를 정비·개발하여 프로그램화함으로써 현대사 및 평화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고 문화관광자원으로서도 가치를 지니게 된다.

○ 이 연구의 목적은 제주지역 일본군 전적지의 역사교육장화를 통한 관광상품으로의 활용가능성을 모색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부방안들을 제시하는 데 있다.

□ 의견조사 결과 분석

- 첫 째, 관광상품으로의 개발이 요구되며 이에 대한 이용 전망도 밝다.
- 둘 째, 폭넓은 관광시장과 계층을 유치할 수 있는 상품이다.
- 셋 째, 관광자원과의 연계, 홍보, 정비 등 다양한 노력이 요구된다.
- 넷 째, 관광상품의 다양화, 평화의 섬 이미지의 확대 등 직접적인 효과가 기대된다.
- 다섯째, 관광상품으로의 개발 우선순위가 명확히 드러났다.
- 여섯째, 경제적 관점과 더불어 역사교육적 관점도 중시되어야 한다.

□ 관광상품화 방안

▶ 기본 방향

- 첫째, 미래지향적 사고로의 접근
- 둘째, 적극적인 보존 및 복원
- 셋째, 창조적 연출미의 가미

▶ 세부 방안

1. 투어프로그램의 개발 및 활성화 방안

- '송악산 코스' 와 '일출봉 코스', '삼매봉 코스' 등이 상품성 및 연계성 등에서 보다 타당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어 세 가지 투어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.
- 한편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부 전략들을 시행한다.
 - 난간이 있는 형태의 접근로를 마련한다.
 - 어뢰정, 강제노동하는 제주인의 모형 등을 전시한다.
 - 건설경위와 규모, 제주인의 수탈역사 등을 설명해 주는 안내문을 설치한다.
 - 전적지 지도를 제작하여 정보제공 및 학생들의 교육자료로도 활용한다.

2. 전적지 박물관의 건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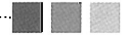
- 일반인들이 전적지 관련 역사를 접할 수 있는 상징적인 단일공간이 필요하다.
- 과거 식민지시대 제주의 역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한다.
- 도입시설은 자료 및 유물전시관, 영상체험관, 학습관, 야외 전시장, 기념비 또는 추모비, 기타 편의시설 등을 갖추어, 단순 박물관이 아닌 종합휴양공간으로서의 기능 수행도 도모한다.

3. 적극적인 원형보존과 소규모 공원화

- 전적지 관련 유물은 다소 파괴되었더라도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전시하므로써 관광객으로 하여금 보다 생생한 역사체험을 가능하게 한다.
- 소규모 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들과 관광객의 휴식공간이자 역사교육장으로 활용될 수 있게 최소한의 공간을 제공하고 상품성과 접근성을 높인다.

4. 창조적 연출미의 가미

- 제주지역 전적지에 얽힌 이야기 소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관광객들에게 제공.
- 전적지 주변에 모금함을 설치하여 일정기간 모금한 후 UNICEF(국제아동보호기금)이나 평화 관련 기금 등으로 운용하여 전적지의 역사적 상징성을 부각시키고 관심을 유도한다.



5. 적극적인 홍보전략 모색

- 일본인관광객을 대상으로는 먼저 과거 역사에 향수를 가지는 중·장년층을 집중 공략하고 점차 청소년층으로 확대한다.
- 도·시·군 별로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일본 지역의 중·장년층과 청소년 등을 초청하여 탐방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초기의 낮은 인지도를 높인다.
-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는 2차 세계대전과 관련하여 역사적 동질성이 있음을 부각시키고 양국이 함께 반성하고 의논하는 기회의 장을 마련한다.
- 양국의 일본군 전적지를 상호탐방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한중간의 우호를 증진하고, 양국간의 관광을 촉진시키는 방법으로 활용한다.
- 내국인과 수학여행단을 대상으로 한 홍보전략의 컨셉은 제주관광을 통해 과거 역사체험과 자녀들의 교육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.
- 기타 전적지 관련 사진엽서, 전적지 지도, 기념품 등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관광객이 돌아간 후 주변 사람에게 구전될 수 있는 홍보방법으로 활용한다.

6.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

- 송악산코스의 경우 최남단 마라도관광을 연계시키고 삼매봉코스의 경우 서귀포 앞바다 선상관광 및 낚시·스킨스쿠버관광을, 일출봉 코스는 일출봉 선상관광과 섭지코지 낚시관광 등을 연계시켜 해양 및 역사형 프로그램으로 개발한다.